

1608년 松廣寺 重刊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연구*

A Study of *Gwonsujeonghyebyeolsamun*(『勸修定慧結社文』) and
Gyechosimhaginmun(『誠初心學人文』), Reprint Editions
by Songgwang Temple(松廣寺) in 1608

채 상 식 (Chae, Sang-Si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자료의 검토 | <참고문헌> |
| 3. 같은 시기 송광사 간행 불교전적과의 관련성 | |

< 초 록 >

본고에서 다룬 『勸修定慧結社文』과 『誠初心學人文』 두 자료는 지눌의 저술로서 13세기 중반에 간행된 자료를 중간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간행된 그 어떤 자료보다 고려시기의 판본에 가까운 점이 주목된다.

임란 직후 송광사에서 이 자료를 간행한 것은 1608년 전후에 송광사에서 근 20여 종의 불서를 집중적으로 간행한 것과 관련된다. 이는 정유재란 이후 송광사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간행된 불서를 보면 지눌과 서산의 저술이 주를 이루며, 아울러 후대에 사집 과목으로 지정된 불서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본 『勸修定慧結社文』 판본에는 사명대사 유정이 정정한 것임을 명기한 내용이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송광사는 지눌을 계승하고 그의 사상적 흐름을 천양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서산과 유정을 수용하고 이어 부휴선사를 초청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을 받아들인 것은 지눌의 사상적 경향과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광사는 서산, 사명, 부휴 등 당시 최고의 고승을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눌의 부활’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불교계에서 승가 교육을 강화하는 전통을 수립하였다.

要語: 『勸修定慧結社文』, 『誠初心學人文』, 松廣寺, 知訥, 西山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chaess@pusan.ac.kr)

접수일: 2010년 12월 10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Gwonsujeonghyegyolsamun and *Gyechosimhaginmun*, examined in this research, are reprint editions of Jinul(知訥)'s works published in the mid-13th century. It is worthy of notice that they were most similar to the editions of the Goryeo Dynasty out of all reprint editions in the Joseon period.

The publication of these two books at Songgwang Temple is related with the Temple's intensive effort to publish about twenty kinds of Buddhist books around 1608. It was a fruit of hard work to reconstruct Songgwang Temple after the 'Second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7(丁酉再亂).' The majority of Buddhist books published by Songgwang Temple were works of Jinul and Seosan(西山), and some books later selected as 'Four Buddhist Texts(四集) were also included'. *Gwonsujeonghyegyolsamun* described clearly that Yujeong, Buddhist Master Samyeong(四溟大師 惟政), revised its contents.

In sum, it seems that Songgwang Temple accepted Seosan and Yujeong, and invited Buhyuseonsu(浮休善修) to succeed Jinul and widely spread his thought. Needless to say, they were accepted because their thoughts were not opposed to that of Jinul. Therefore, Songgwang Temple naturally professed 'the revival of Jinul' by accepting the greatest Buddhist monks of the day such as Seosan, Yujeong, and Buhyu, and established a tradition emphasizing an education of Buddhist priesthood in the community of Buddhism.

Key words: *Gwonsujeonghyegyolsamun*, *Gyechosimhaginmun*, Songgwang Temple, Jinul, Seosan

1. 머리말

한국불교사 연구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당대의 자료부족 문제이다. 그러나 조선시기의 자료를 접하다 보면 이전의 불교계 사정을 알려주는 귀한 자료를 만나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료는 17세기 초에 간행된 자료이지만 고려 후기 수선사 신앙결사를 주창한 지눌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신란 이후 불교계 내부에서 개혁을 표방하면서 일어난 신앙결사는 수선사와 백련사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 수선사는 지눌이 개창한 결사로서 그 의미가 크기도 하지만, 지눌이 표방한 불교사상이 구현된 공간이라는 점도 놓칠 수 없다. 이러한 새로운 불교운동을 정착하고 대중적 기반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은 사상적인 정립과 실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중에 불교전적의 간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수선사는 백련사에 비해 실천성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많은 전적을 간행하는데,¹⁾ 이들의 내용과 성격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곧 지눌 및 그의 제자인 혜심의 저술과 이와는 계통이 다른 선적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대중적 교화를 위한 선언적인 글과 불교사상을 깊이 있게 표방한 저술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선사가 당시 간행한 지눌의 저술들이 17세기 초반에 수선결사가 이루어졌던 송광사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된 현황을 주목할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눌이 정혜결사를 표방하면서 쓴 글인 「勸修定慧結社文」이 당시에 간행된 사정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현전하는 「勸修定慧結社文」의 판본으로 가장 오래 것은 17세기에 간행된 두 사례가 보이지만 이들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고려시기에 간행된 사정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룰 1608년에 송광사에서 간행한 판본은 송광사 판본에

1)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나, 다음의 연구성과들이 있다.

李鍾益, “普照著述의 書誌學的 解題,” 『보조사상』 3(1989); 蔡尙植, “修禪結社 禪思想의 經緯,” 『高麗後期 佛教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1), 62-64.

관한 기초적인 조사에서는 이미 목록에 소개하고 있다.²⁾ 그러나 현 학계에서 이 자료가 고려시기의 판본을 중간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勸修定慧結社文』에 주목하면서 아울러 이에 합철된 곧 지놀이 초학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誠初心學人文』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하나는 본고에서 다룬 『勸修定慧結社文』과 『誠初心學人文』을 간행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송광사에서는 많은 불교전적을 간행하였는데, 이때 간행된 자료들을 통해서 송광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운동이 결집되고 있는 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불교계를 양분한 세력은 서산계와 부휴계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실상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 형편이다. 당시 송광사는 1609년 浮休善修(1543~1615)를 초청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판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부휴선수를 송광사에 초청한 사상적 기반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한편 부휴가 송광사에 초청되기 이전에 송광사에는 서산휴정(1520~1604)과 사명유정(1544~1610) 등과도 연결된 불서가 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부휴와도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선후기에 대두한 법통 문제의 이해에도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한다. 곧 송광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산-사명-부휴로 이어지는 불교사상의 흐름 속에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서산을 계승한 일부 세력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태고법통설을 강조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자료의 검토

본 자료의 판목은 현재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에 남아 있다. 따라서 인출된 판본은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본 자료는 『勸修定慧結社文』과 『誠初心文』, 곧 『誠初心學人文』이 합철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형태의 판본으로 인출

2)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245-247; 宋日基, “順天 松廣寺 刊行 佛書考 - 朝鮮朝 有刊記佛書を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10(1994), 542; 조명제, “朝鮮後期 松廣寺의 전적 간행과 사상적 경향,” 『보조사상』 32(2009), 20-21.

되어 유행했기 때문에 각각의 판본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³⁾ 이는 「勸修定慧結社文」의 경우 본 자료 외에 간행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⁴⁾ 주목하지 않았지만, 「誠初心學人文」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간행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두 자료가 함께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놓쳤던 것 같다.

곧 송광사는 1608년에 많은 불교전적을 간행하는데, 이와 관련된 목록만을 보면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發心修行章」·「自警文」·「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 등이 보인다.⁵⁾ 이들은 각각의 목판으로 판각되었고 각 판본마다 간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지자료로 정리할 때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에서는 독립된 판본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16세기에는 「초발심자경문」을 간행하면서 몽산 관련 두 자료를 함께 합철한 사례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송광사에서 1608년에 이들을 판각하여 독립된 목판으로 조성했으나, 이전의 관행처럼 다섯 가지 자료는 합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자료 중 「誠初心學人文」 말미에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文并終”으로 명기되어 있기에(그림 2) 「권수정혜결사문」과 「계초심학인문」 두 자료는 함께 묶기 위한 의도를 갖고 간행하였음은 분명하다.⁶⁾ 아마 「계초심학인문」 판목은 「초발심자경문」으로 합철할 때도 이용했겠지만, 「권수정혜결사문」과 함께 합철하기 위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를 기왕의 서지조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지만 두 자료를 함께 간행한 것은 분명 사상적인 의도와 지향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송광사에서 지눌의 저술 중에 정혜결사를 표방하면서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勸修定慧結社文」과 초학자들에게 신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점을 강조한 「誠初心學人文」을 함께 간행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송광사

3) 朴相國(1987) ; 宋日基(1994) ; 조명제(2009).

4) 李鍾益(1989), 153-154.

5) 宋日基(1994), 542.

6) 金敏榮, 『金敏榮所藏 古書目錄』 (서울: 동국대학교, 2007), 103쪽에 합철된 판본이 보이며, 필자도 소장하고 있다.

가 정유재란 이후 송광사를 비롯하여 파괴된 불교계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자료의 서지형태 사항과 내용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자료는 『勸修定慧結社文』의 본문과 간기, 『誠初心學人文』의 본문과 발문[誌文]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誠初心學人文』의 지문은 『勸修定慧結社文』의 간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勸修定慧結社文』의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기 : 南京留守判官兼勸農使保勝郎將李光甫施財刊板印行.

大明萬曆三十六年戊申六月日順天府松廣寺重刊 山人學明書.

체제 : 1冊32張, 四周單邊, 半廓; 19×14cm, 無界(一部有界), 半葉 9行17字,
注雙行, 上下內向黑(混入花紋)魚尾, 29.6×17.7.

板心題; 文

이어 『誠初心學人文』의 서지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제 : 1冊5張, 四周單邊, 半廓; 19×14cm, 無界, 半葉 8行17字, 上下內向黑
魚尾, 29.6×17.7.

板心題; 初

이러한 서지형태를 갖고 있는 본 자료는 고려본을 충실하게 계승한 중간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勸修定慧結社文』의 간기에서 알 수 있다. 『勸修定慧結社文』은 간기에 “時明昌元年庚戌季春 公山隱居 牧牛子知訥謹誌”라 하여 지눌이 이 글을 금의 명창 원년 곧 고려 명종 20년(1190)에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勸修定慧結社文』의 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승안 5년 경신년에 이르러(정혜)결사를 팔공산에서 강남의 조계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그 이웃에 정혜사란 절이 있어 그 명칭이 혼동되기 때문에 조정의 교지(사액)를 받들어 정혜사를 수선사로 고쳤다. 그러나 권수문은 이미 유포되었으므로 옛 이름대로 조판하고 인행하여 널리 베푼다(至承安五年庚申 自公山社於江南曹溪山 以隣有定慧寺 名稱混同 故受朝旨 改定慧社爲修禪社 然

勸修文 既流布故 仍其舊名 彫板印施耳.)”

곧 지눌의 정혜사가 승안 5년(1200)에 팔공산에서 조계산으로 옮겨오면서 인근의 정혜사와 명칭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액을 받아 그 명칭을 수선사로 하였으며, 그러나 이미 유포한 바 있는 정혜결사문은 그 이름 그대로 조판하여 유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간행과 관련된 단월에 대한 사항인 “南京留守判官兼勸農使保勝郎將 李光甫施財刊板印行”이라는 귀중한 자료를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이광보는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비해 절대년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간행하여 유포한 시기는 유추할 수 있다. 앞서 살핀 간기에는 간행년도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광보가 시주하여 간행한 해가 승안 5년(1200)인지 애매하다. 이에 대한 확실한 사정을 알려주는 다음의 지문은 주목된다(그림 1 참조).

“(나의) 문인인 璉 선객이 어느 날 나에게(大全) 찾아와서 말하였다. ‘조계결사문은 바로 우리의 조사이신 목우화상이 성심으로 간절하게 근본에 힘써 가장 요체가 되는 틀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결사문을) 후학의 무리들은 눈으로 한번 대충 보는 식으로 가볍게 대하는 자가 많아졌다. 실로 탄식할 만하다. 여러 선석에서는 불사를 널리 펼칠 때 후학들에게 (결사문을) 근본으로 삼도록 하였는데, 이를 어찌 조그마한 일이라 하겠는가. 그러나 옛 판본은 글자와 행간이 거칠어지고 느슨해져 열람하기에 불편해졌다. 이에 새로 글씨를 쓰고 판에 새겨 널리 유통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습니까.’라 하였다. 나는 좋은 일이며 바로 나의 뜻이라 하고 이에 (그를) 위촉하여 이 일을 주관토록 하였다. 불사가 이미 끝나 우리 절의 경사가 되었으며, 이로써 바라는 바가 오래 전해졌으면 한다. 임금의 수명이 영구하고 몽고병이 스스로 멀리며 청하상국의 수명이 길게 펼치기를 빈다. 그리고 널리 범계의 모든 중생들에게도 미쳐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빈다. 임자년 정월일에 월남사주 향 비구 대전이 적는다(門人璉禪客 一日告予曰 曹溪結社文 是我祖牧牛和尚 誠心苦口 勉初機之樞要 而後學輩 多輕脫未嘗一經於目 良可嘆也 如諸方禪席 以時乎宣演爲事 使後來知作之所始 豈小補哉 然舊本字行疎緩 未便於閱習 欲改書鏤板 以廣流通 其可乎 予曰善 是吾志也 因囑之 幹其事 功既畢矣 寔于茲社 以壽傳爲所冀 聖壽天長 隣兵自滅 清河相國 壽祿延洪 普及法界迷流 同臻覺地爾 歲次壬子正月日 月南社主 香比丘大全 誌).”

위의 월남사주 향 비구 대전이 쓴 지문은 서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

계의 사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자료는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의 어느 판본에도 실린 적이 없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 자료에 의하면 『勸修定慧結社文』의 새로운 판각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비구 대전이 이 글을 지은 ‘임자년 정월’을 판각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핀 『勸修定慧結社文』의 단월에 관한 “南京留守判官兼勸農使保勝郎將 李光甫施財刊板印行”라는 기록과도 관련될 것이다. 곧 이광보가 시주하여 『勸修定慧結社文』을 간행한 시기가 임자년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 보이는 이광보에 관한 다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250년대 수선사가 최씨정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비록 이광보가 남경유수관관으로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지만 간행의 경비를 모두 부담할 정도이면 그는 최씨정권과 연결이 닿는 인물임에 분명하다.



<그림 1> 송광사 1608년판 「勸修定慧結社文」 大全의 誌文

셋째, 이 자료를 통해 당시 수선사는 대몽항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례는

보이지 않으나, 최씨정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몽항전을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지문 중 “聖壽天長 隣兵自滅 清河相國 壽祿延洪”이라는 구절에서 ‘清河相國’은 바로 崔瑀(怡)를 가리키며 몽고병이 자멸하기를 축원하는 내용을 통해서 짐작된다. 따라서 임자년은 고려 고종 39년(1252)임이 확실하다.

한편 「勸修定慧結社文」을 송광사에서 1608년 중간할 당시의 단월에 대한 기록과 특히 「誠初心學人文」에 비구 대전이 쓴 지문 다음에 명기된 “曹溪離幻 松雲都大禪師惟政 訂正”이라는 구절은(그림 1) 주목된다. 비록 단편적인 짤막한 구절이지만 사명대사 유정이 두 판본에 대해 교정을 시도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곧 사명이 1608년 판각 당시 교정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교정한 것을 이 시기에 판각하면서 명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당시 송광사와 사명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자료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여기서 ‘曹溪離幻’으로 표현한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離幻’이라는 구절은 그가 발문을 짓기도 한 서산의 저술인 「禪家龜鑑」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知幻即離 不作方便 離幻即覺 亦無漸次
心爲幻師也 身爲幻城也 世界幻衣也 名相幻食也 至於起心動念 言妄言眞 無非幻也 又無始 幻無明 皆從覺心生 幻幻如空花 幻滅 名不動 故夢瘡求醫者 寤來無方便 知幻者 亦如是。”

위의 글에서 “환상인 줄 알면 곧 여윈 것이라, 더 방편 지을 것이 없다. 환상을 여의면 곧 깨친 것이라, 또한 닦아 갈 것도 없다.”라고 한 것에서 ‘離幻’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아마 송운대사 유정 곧 사명대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사용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그가 서산의 계승자임을 암묵적으로 표방한 것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본 자료의 간기에는(그림 3) 송광사에서 중간한 사정을 알려주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간행을 총괄한 인물과 글씨를 쓴 승려, 각수 등에 관한 사정이다. 간기에 보이는 ‘大功德兼勸善 應禪’이라 한 ‘應禪’과 ‘山人學明 書’이라 한 ‘學明’은 이 시기 송광사를 주도한 대표적인 승려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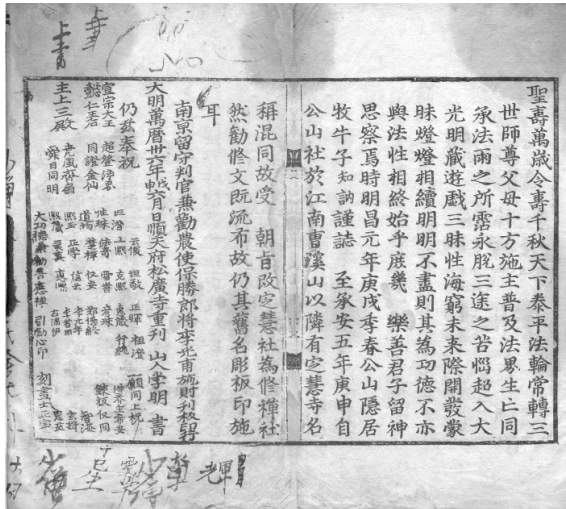
그러면 이상에서 살핀 자료를 토대로 비록 현전하지 않지만 고려본에 관한

서지정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⁷⁾ 우선 「勸修定慧結社文」의 지문에 보이는 곧 “時明昌元年庚戌季春 公山隱居牧牛子知訥誌”라는 구절로 보아 금 명창 원년인 고려 명종 20년(1190)에 본 결사문을 반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로 보아 당시의 간행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놀이 지금의 송광사로 옮겨오면서 결사문을 조판한 사정을 밝힌 글에 이미 결사문 반포시에 ‘유포’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1190년 결사문을 반포한 시기를 초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차 간행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200년 조계산 송광사로 옮겨올 때로 볼 수 있다. 3차 간행은 본고에서 다룬 1608년 송광사판에 보이는 곧 이광보가 시주하여 간행한 시기인 고려 고종 39년 임자년(1252)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송광사 1608년판 「勸修定慧結社文」 제1장

7) 李鍾益(1989), 153-154.



<그림 3> 송광사 1608년판 「勸修定慧結社文」 刊記

이상에서 본 자료의 서지사항을 살핀 결과 본고에서 다룬 두 자료는 고려본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중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자료에 수록된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각각의 유행판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勸修定慧結社文」의 주요 유행본을 들면 다음과 같다.⁸⁾

1. 1608, 松廣寺板, 萬曆 36年戊申 6月 順天府 松廣寺 重刊(「誠初心學人文」 합철)
2. 1635, 龍藏寺板, 崇禎 8年乙亥 4月日 全羅道 泰仁地雲住山 龍藏寺刊(松廣寺板의 복각, 「誠初心學人文」 합철)⁹⁾
3. 1681, 雲興寺板, 康熙 20년 慶南 蔚山 雲興寺刊
4. 1850, 奉印寺板, 咸豐 10년 天摩山 奉仁寺 浮圖殿藏板(「修禪結社文」이라 개칭)
5. 1908, 禪門撮要 合本, 隆熙 2년 慶南 東萊府 金井山 梵魚寺 開刊

8) 李鍾益(1989), 153-154.

9) 李鍾益(1989), 154쪽에 소장처를 삼각산 승가사로 명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확인한 바 이곳에 현전하지 않는다.

이상의 판본은 근대 이후 활자본을 제외한 목록인데, 『勸修定慧結社文』의 성격상 그렇게 널리 유행된 것은 아니며 현전하는 목판과 판본으로 보아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1608년의 송광사판이 가장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송광사판 다음으로 오래된 용장사판의 경우 송광사판을 복각한 판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전하는 『勸修定慧結社文』 판본으로서는 송광사본이 가장 고려본에 가까운 고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본 자료는 현전하는 『勸修定慧結社文』 판본 중에 가장 고려본에 가까운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판본에 비해 이 자료가 표준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국대에서 활자화한 한국불교전서 중의 『勸修定慧結社文』은 바로 본 자료를 중심으로 활자화했기 때문에 표준본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기의 인명 중 판독치 못한 몇 자는 보충할 수 있다. 곧 □潛 → 正潛, 鄭□終 → 鄭倍終, 李兆年 → 李元年, 李□□ → 李者同, 玄□ → 玄揖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

다음, 『誠初心學人文』의 판본 중 간행년도가 명시된 주요 유행본을 들면 다음과 같다.¹⁰⁾

1. 1400, 建文 2年 8月日誌 智異山 德奇庵 重刊
2. 1563, 嘉靖 42年癸亥 夏孟月日 全羅道 凌城 雙峰寺 開刊
3. 1563, 嘉靖 42年癸亥 9月15日 慶尙道 安東地 下柯山 廣興寺 開板
4. 1564, 嘉靖 43年甲子 3月日 全羅道 扶安地 邊山 蒼岫庵 開板
5. 1567, 隆慶 元年丁卯 佛明山 雙溪寺 開板
6. 1570, 隆慶 4年庚午 暮春 全羅道 康津地 無爲寺 開刊
7. 1572, 隆慶 6年壬申 黃海道 瑞興地 崇德山 歸眞寺 開板
8. 1574, 萬曆 2年甲戌 季夏 九月山 月精寺 開板
9. 1577, 萬曆 5年丁丑 全羅道 順天地 曹溪山 松廣寺 留板

10) 高姬淑, “韓國佛教 講院 沙彌科 教材의 書誌의 研究,” 『서지학연구』 10(1994), 895-898쪽에는 18종의 판본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박상국이 조사, 정리한 13종에 5종을 추가한 것이다(朴相國(1987), 부록; 有刊記佛書木版本 目錄, 참조). 다만 이 중 1612년본은 실물로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필자가 소장한 3종을 추가하였다(위의 자료 중 3, 13, 14). 차후 다른 자료에 합철된 자료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판본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10. 1579, 萬曆 7年己卯 夏 智異山 神興寺 留鎮
11. 1583, 萬曆 11年癸未 京畿 龍仁地 光教山 瑞峯寺 開板
12. 1584, 萬曆 12年 忠清道 瑞山地 伽耶山 開心寺 新刊
13. 1588, 萬曆 16年戊子 正月 慶尙道 清道土 雲門寺 開板
14. 1603, 萬曆 31年癸卯 冬 智異山 能仁菴 開刊 移鎮 雙溪寺
15. 1608, 萬曆 36年戊申 8月日 順天府 松廣寺 重刊
16. 1633, 崇禎 6年癸酉 7月日 咸鏡道 安邊土 雪峰山 釋王寺 開刊
17. 1634, 崇禎 7年甲戌 京畿 朔寧地 水清山 龍腹寺 開刊
18. 1635, 崇禎 8年乙亥 4月 全羅道 龍藏寺 開刊
19. 1708, 康熙 47年戊子 順天 靈駕山 興國寺 新開刊板
20. 1883, 光緒 9年癸未 3月下澣 海印寺 重刊

이상에 소개한 각각의 판본마다 그 특징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誠初心學人文」에 관한 본격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는 생략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다룬 1608년 판본과 각종 「誠初心學人文」 판본을 통해서 주목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誠初心學人文」만 독립적으로 간행한 판본이 있긴 하지만 드문 편이고, 대부분 다른 불교전적과 합철되어 있다. 곧 필자가 판본을 직접 접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한 1400년(1), 1572년(7)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불교전적과 합철되어 있다.

둘째, 합철된 자료를 살펴보면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는 조선후기 사미과의 이력과목으로 정착된 「초발심자경문」(元曉의 發心修行章·野雲의 自警文) 뿐만 아니라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蒙山和尚法語略錄」 등이 합철된 판본이 주를 이룬다.¹¹⁾ 본고에서 다룬 1608년본의 경우처럼 「勸修定慧結社文」과 합철된 사례는 한건도 보이지 않는다. 또 몽산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정형화되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는 보인다. 그러면 몽산 관련 자료를 합철한 사상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그러다가 17세기 중반 이후 이력과목이 정비될 때 사미과 과목으로 「초발심자경문」이 채택되면서¹²⁾ 몽산 관련 자료들이 제외된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¹³⁾ 이는 단순히 해석해도 될 정도로 가벼

11) 高姬淑(1994), 895쪽에는 「發心修行章」·「自警文」 등과 합철된 사례만 들고 있다.

12)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履歷科目的 선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50(2010).

운 주제가 아니다. 조선후기의 불교가 전기에 비해 새롭게 정비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나름의 견해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셋째, 『誠初心學人文』은 900여 자로 된 본문과 “泰和乙丑 冬月 海東 曹溪山老納 知訥誌”라는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 판본에는 지놀이 금태화 5년 곧 고려 희종 원년(1205)에 이 글을 지었음을 밝힌 지문이 빠져 있다. 비록 본고에서 다른 송광사본이 훨씬 이전부터 간행된 수종의 판본에 비해 늦은 시기에 간행되었지만, 지놀이 『誠初心學人文』을 지은 시기를 알려주는 지문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판각의 정확성에 관한 한 송광사본이 가장 선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같은 시기 송광사 간행 불교전적과의 관련성

앞서 1608년에 간행한 본 판본은 송광사에 전해진 고려시기의 판본을 중간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두 자료를 중간한 의도는 무엇인지를 검토할 차례이다. 이를 위해 송광사에서 1608년 전후 시기에 간행한 불교전적과 당시 송광사가 처한 상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광사는 정유재란 때에 전각이 일부 소실되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 존속되었다. 당시 송광사를 주도했던 승려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최근의 기록이지만 『松廣寺誌』를 통해¹⁴⁾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송광사는 정유재란 때에 수각, 임경당, 보조암, 천자암 등이 소실되었으나 나머지 당우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전란이 끝나갈 무렵인 선조 30년

13) 孫成必, “16世紀 朝鮮의 佛書 刊行,”(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64-66 ; “16세기 佛書 刊行의 양적 추이,” 『九山論集』 12(2007)에는 17세기 이후 몽산 관련 불서의 간행이 줄어든 사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빠져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용하기로 한다.

14) 林錫珍, 『松廣寺誌』(서울: 불일출판사, 1965(1987년 영인판)), 23-26.

(1597)에 주지를 맡은 應禪和尚이 熙藏, 惠藏, 靈機, 靑雲 등의 화주를 모아 중창 불사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광해군 원년(1609)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각 전각들을 중건하였다. 그 해에 응선화상은 당시 지리산에 머물고 있던 부휴선수(1543~1615)에게 송광사에 주석할 것을 간청하였다. 마침내 부휴선수는 그의 문도인 覺性(1575~1660)을 비롯한 400여 명의 문도와 더불어 송광사로 옮겨왔다. 부휴선수는 송광사의 나머지 불사를 주관하여 광해군 4년(1612) 경에 이르러 功役을 일단락지었다. 그 후 송광사는 본래 주석하던 200여 명을 포함한 600여 명의 스님들이 운집하여 동안거 수행에 힘쓸 정도로 수행공간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송광사가 임진왜란·정유재란을 겪고 이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한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 송광사는 예상 외의 많은 불교전적을 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후대의 단편적인 자료 외에 거의 없는 송광사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될 만하다.¹⁵⁾ 그러면 우선 이 시기에 간행된 불교전적을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6세기~17세기 초반 송광사 간행 불서 목록¹⁶⁾

| 간행연도 | 서명 | 비고 |
|------|--|------------------------|
| 1529 | 人天眼目 | |
| 1531 | 1. 淸涼答順宗心要法門 2. 大慧普覺禪師書 3. 天地冥陽水陸雜文 4. 佛祖宗派之圖 | 宗鏡錄撮要(曹溪山 隱寂菴) 간행과 연관됨 |
| 1563 | 佛說大報父母恩重經 | |
| 1574 |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 |
| 1577 | 1. 初發心自警文(諺解) 2. 法語(諺解) 3.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 |

15) 조선시기 송광사가 간행한 불서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살핀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송일기(1994) ; 조명제(2009).

16) 본 표는 朴相國(1987) ; 宋日基(1994) ; 孫成必(2007)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그러나 실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 간행연도 | 서명 | 비고 |
|------|--|---|
| 1583 | 法華經 | |
| 1590 | 高峯和尚禪要 | |
| 1598 | 1. 眞實珠集 2. 眞心直說 | |
| 1604 | 佛說廣本大藏經 | |
| 1606 | 護戒牒 | 앞면은 海水觀音像 판각 |
| 1607 | 1. 法華經 2. 禮念彌陀道場懺法 3. 禪家龜鑑 4. 雲水壇詞 5. 原人論 6. 精選四家錄 | 精選四家錄과 합철 |
| 1608 | 1. 勸修定慧結社文 2. 誠初心學人文 3. 圓頓成佛論 4. 看話決疑論 5. 初發心自警文 6. 大慧普覺禪師書 7.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8. 禪源諸詮集都序 9. 四法語 10. 蒙山和尚法語略錄 | 慧謙 跋文 및 崔沆 誌 수록 誠初心學人文은 빠져 있음 慧謙의 '狗子無佛性話揀病論' 수록 蒙山和尚法語略錄 합철 |
| 1609 | 1. 楞嚴經 2. 佛說天地八陽神呪經 3. 誠初心學人文(諺解) 4. 高峯和尚禪要 | |
| 1610 | 禪家龜鑑(諺解) | 善修가 校正 |
| 1611 | 地藏菩薩本願經 | 壬子(1612) 완성 |
| 1615 | 法華經 | |
| 1618 | 1. 金剛經 2. 佛說壽生經 3. 佛說阿彌陀經 4. 佛說預修十王生七經 5. 禪家龜鑑 6. 訓蒙要鈔 | 佛說壽生經과 합본 萬曆己卯(1579)에 쓴 惟政 跋文 수록 |
| 1619 | 浮休堂大師集 | |

위의 표를 보면 1607~1609년 3년간에 걸쳐 가장 활발하게 불서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은 1618년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應禪和尚이 정유재란 이후 대대적인 중창불사를 이룩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때 간행된 불서의 간기를 보면 ‘本寺住持 大禪師信安’,¹⁷⁾ ‘大禪師應禪’,¹⁸⁾ ‘幹善衲子湛玄’¹⁹⁾ 등을 비롯한 간행에 참여한 단월과 실무직을 담당한 인물 등 당시 사정을 어느 정도 알려준다.

한편 당시 송광사 불사를 추동하기 위한 과정에서 ‘受戒’ 행사가 병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사례가 바로 위 표의 1606년에 조성된 「護戒牒」이다. 이 「호계첩」에 ‘勅賜大乘禪宗曹溪山松廣寺金剛戒壇’이라²⁰⁾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송광사에서 금강계단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단 설치를 통해 불교의 신앙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아울러 많은 서민대중 단월들의 경제적인 후원을 이끌어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계 행사를 기반으로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인 불서간행과 전각 재건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또 이 「호계첩」에서 흥미로운 것은 ‘大乘禪宗’이라 한 종파 명칭이다.

이러한 당시 송광사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응선을 비롯한 지도층 승려들은 사상적인 지향점을 갖지 않고 막연하게 불서를 간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추구했던 사상적인 지향점은 바로 간행한 불서로 표방되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이러한 작업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과 사상적인 지향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1570년대부터 1610년대에 이르기까지 송광사에서 간행한 불교 전적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지눌의 저술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둘째, 서산의 저술 중 「禪家龜鑑」의 경우 언해본을 포함해서 수차례에 걸쳐 간행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조선후기 이력과정에서 四集으로 지정된 4종의 저술이 보인다. 넷째, 몽산 관련 저술 등을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17) <표> 중의 1607년 간행 1 - 法華經의 간기.

18) <표> 중의 1608년 간행 5 - 初發心自警文의 간기.

19) <표> 중의 1608년 간행 7 -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및 8 - 禪源諸詮集都序의 간기.

20) 朴相國(1987), 254.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눌의 저술 중에서도 특히 『誠初心學人文』이 단독 또는 『初發心自警文』의 형태로 합철되거나 심지어 언해본으로 간행될 정도로 수차례 간행하고 있다. 이는 『初發心自警文』의 내용상 불교의 초심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勸修定慧結社文』과 함께 지눌이 개창한 수선결사를 계승하고 승풍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송광사 지도층의 의도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지눌의 핵심적인 불교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3門 곧 惺寂等持·圓頓信解·徑截門을 표방한 저술들을 차례로 간행하고 있다. 특히 고려본을 토대로 ‘중간’한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圓頓成佛論』, 『看話決疑論』 등은 주목된다. 이러한 불서들을 보면 결국 당시 송광사는 지눌의 수선결사를 재건하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송광사에서 서산의 저술 중에서도 『禪家龜鑑』을 수차례 간행한 점은 주목된다. 『선가귀감』이 표방하는 사상적 특징은 ‘捨教入禪’하되 선교를 아우르는 곧 선 절대주의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저술 『禪教訣』에서 선과 교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선이나 교가 한편에 치우쳐 편협해지는 오류를 경계하는 것과도 연결되며, 지눌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그가 『禪家龜鑑』을 찬술한 시기는 논란은 있으나, 대체로 서문을 지은 명종 19년(1564)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논지 전개상 17세기를 하한으로 하여 『선가귀감』의 유통 사정을 살펴보기로 한다.²²⁾

1. 1569, 隆慶 3年己巳 5月日 妙香山 普賢寺 開刊(諺解本)²³⁾
2. 1579, 萬曆 7년己卯 智異山 神興寺²⁴⁾(惟政의 跋文, 송광사본과 유사하다고 함)²⁵⁾

21) 高翊晉,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불교학보』 22(1985), 210-211.

22) 申法印, 『西山大師의 禪家龜鑑研究』(서울: 신기원사, 1983).

宋日基, “禪家龜鑑 異本考,” 『서지학연구』 2(1987) 및 “禪家龜鑑 諺解本과 漢文本,” 『서지학연구』 5·6합(1990).

23) 宋日基(1990), 290-291.

24) 宋日基, “禪家龜鑑 成立考,” 『서지학연구』 7(1991), 45-46.

25) 宋日基(1987), 168.

3. 1583, 萬曆 11年癸未 金剛山 楡岾寺 開刊
4. 1590, 萬曆 18年庚寅 夏 金剛山 楡岾寺 開刊
5. 1604, 萬曆 32年甲辰 慶尙道 華山 圓寂寺 開刊
6. 1607, 萬曆 35年丁未 全羅道 順天府 曹溪山 松廣寺 開刊(惟政의 己卯 跋文)
7. 1610, 萬曆 38年庚戌 全羅道 順天府 曹溪山 松廣寺 開刊(諺解本)
8. 1612, 萬曆 40年壬子 妙香山 內院庵 開板 留移 普賢寺
9. 1618, 萬曆 46年戊午 順天地 松廣寺 開刊(위의 2의 복각본, 惟政의 己卯 跋文)
10. 1633, 崇禎 6年癸酉 朔寧 龍腹寺 留板
11. 1649, 順治 6年己丑 鷲栖山 通度寺 重刊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현전하는 「선가귀감」의 판본은 17세기를 하한으로 하더라도 11종이나 된다. 승려 개인이 찬술한 것으로는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판본의 간행처를 살펴보면, 서산대사(1520~1604)와 직접 인연이 닿는 사찰을 포함하더라도 송광사에서 가장 많은 곧 3차에 걸쳐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정유재란 이후 송광사를 복구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간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607년에는 서산의 다른 저술인 「雲水壇誦詞」와 함께 일차 간행하고, 이어 1610년에는 부휴선수가 교정까지 보아 가면서 언해본을 간행하며, 1618년에는 복각본을 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편 송광사가 서산을 중시할 때 그의 상수제자인 사명대사(1544~1610)도 송광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송광사에서 「선가귀감」을 간행할 때 사명이 1579년에 지은 발문을 함께 수록한다든가, 특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608년 송광사에서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을 간행할 때 사명이 이 판본에 대해 교정을 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이때 사명이 송광사에 일시 머물렀거나 아니면 송광사 승려가 사명이 만년에 주석한 해인사를 방문하여 교정을 받아왔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와 함께 도원이 1612년에 쓴 「송광사중창기」에 “社文 校正 嘉善都大師 松雲, 大功徳主 國一宗師 善修比丘, 大施主 幹善 本寺住持 應禪.”라고²⁶⁾ 한 것에서도 사명이 입적 직전에 송광사의 불사에 관련하였음을²⁷⁾ 짐작케 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산-사명을 송광사에서 수용한 것은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이 시기에 지눌의 계승을 표방한 송광사 지도부로서는 당대 최고의 선승인 서산과 지눌의 사상이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시기에 응선대선사를 필두로 하여 浮休善修(1543~1615)를 초청하고 부휴로서도 그의 사형인 서산과 사상적인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에 송광사의 초청에 응했다고 할 수 있다.

송광사에서 『禪家龜鑑』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간행한 사실과 다른 불서간행을 연결시켜 볼 때, 결국 이때 송광사는 사상적으로 지눌-서산(사명)-부휴로 연결되는 큰 흐름을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불교계를 주도한 큰 흐름으로 서산계, 부휴계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곧 당시 송광사가 표방한 불교사상의 주요 흐름은 지눌을 계승하는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당시 송광사의 불교지도부는 서산이나 사명 등을 수용하고 나아가 부휴를 초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눌의 불교사상은 궁극적으로는 간화경절문을 지향하지만 경절문 이전의 교학적인 전통을 수용하는 곧 ‘선교겸수’의 특징이 있다.

현 학계에서는 조선후기 불교계의 흐름을 크게 서산계와 부휴계로 양분하여 이해하면서, 부휴계의 본산을 송광사로 보고 있다.²⁶⁾ 부휴선수가 송광사에 초청받아 주석한 1609년 바로 전해인 1608년에 송광사에서 서산의 저술을 여러 차례 간행한 사례와 이 시기 간행한 불교전적 중 사명이 관련된 몇 가지 사례는 서산계와 부휴계를 대립적으로 구분한 시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물론 17세기 중반 이후 서산의 문도 중 그의 적통을 계승한 것으로 자처하면서 당시 서인이 부각된 정치판도 속에서 크게 세력을 결집한 편양계로 한정한다면, 그들과 부휴의 법손들간에는 경쟁과 문파의식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불교계의 세력판도를 굳이 구분하자면 서산계 내부의 분파를 전면에 내세워

26) 曹溪道源, “臨鏡堂水閣天子庵普照庵重創記,”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년 영인본), 192.

27) 김용태,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보조사상』 25(2006), 322.

28) 崔柄憲, “조선후기 浮休善修系와 松廣寺,” 『동대사학』 1(1995);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2010).

서산-편양계와 부휴계로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유재란 이후 송광사를 복구한 응선대선사를 비롯한 당시 지도부 승려들이 바로 부휴선사를 초청한 주류들이다. 이들은 간행활동을 통해 지눌을 부활하고 큰 틀에서 지눌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서산과 사명 등을 통해 사상적인 지향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휴선수까지도 초청했을 것이다.²⁹⁾ 이는 부휴가 송광사로 옮겨 온 다음 해인 1610년에 『선가귀감』 언해본을 간행하면서 그가 직접 교정을 한 사례를³⁰⁾ 통해 짐작된다. 결국 송광사는 사상적으로 지눌-서산(사명)-부휴선사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으며,³¹⁾ 이러한 큰 틀에서 서산과 사명까지도 받아들이고 이어 바로 부휴선사를 초청했던 것이다.

셋째, 조선후기 이력과정에서 四集으로 지정된 4종의 저술을 간행한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곧 1608년에는 대해보각선사서(書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節要), 선원제전집도서(都序) 등을, 그 다음해에는 고봉화상선요(禪要)를 간행한 것은 승려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³²⁾ 조선시기 승려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이력과정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6세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피력한 견해도 있고,³³⁾ 17세기 전반에 詠月淸學(1570~1654)이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견해도 있다.³⁴⁾ 어떻든 이 시기 송광사에서 간행한 불서가 후대에 정립된 사집 과목과 일치하는 것은 송광사가 조선후기 불교계에서 승려 교육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욱이 이력과정의 사미과 과목 중 하나인 『계초심학인문』을 같은 시기에 간행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선전기에 주로 『계초심학인문』과 함께 합철되었던 몽산 관련 불서가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라지는 현상은 별개의 문제로 음미해야 할 것이다.

29) 김용태(2006), 322-324.

30) <표> 중의 1610년 간행 禪家龜鑑(諺解)의 말미에 “校正大禪師善修”라는 구절을 볼 수 있다.

31) 김용태(2006), 322-324.

32) 宋日基(1994), 541-543.

33) 孫成必(2007), 56-62.

34) 김용태(2006), 223-232 및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履歷科目の 선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50(2010), 124-126.

넷째, 몽산 관련 저술 등을 수차 간행한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송광사만 유독 몽산 관련 자료를 집중 간행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불교계에서 15~16세기에 몽산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는데, 이는 바로 그의 저술을 집중적으로 간행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몽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³⁵⁾ 대부분 그에 관한 자료의 정리, 고려말에 그의 저술과 사상이 수용되면서 이후 불교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된 것은 학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조선시기 그에 관한 자료들과 사상적인 경향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룬 것 같다. 특히 15~16세기에 몽산 관련 자료가 집중되다가 17세기 이후 사라지게 되는 사정은 조선불교사에서 음미해야 할 과제인³⁶⁾ 듯하다.

한편 몽산이 남긴 저술과 사상을 연결시켜 보면, 크게 ‘무자화두’를 강조한 간화선을 표방한 『몽산화상범어약록』·『六道普說』 등과 간화선과 염불의 융합적 형태를 띤 『몽산화상염불화두법』으로 대별된다.³⁷⁾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송광사에서 간행한 몽산 관련 불서는 주로 전자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몽산의 염불화두법이 고려사회에서 적극 수용되지 못한³⁸⁾ 사상적인 전통이 송광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본고에서 다룬 『勸修定慧結社文』과 『誠初心學人文』 두 자료는 지눌의 저술로서 13세기 중반에 간행된 자료를 중간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간행된 그 어떤

35) 대표적인 성과만 들면 다음과 같다. 印鏡, 『蒙山德異와 高麗後期 禪思想 研究』 (서울: 불일출판사, 2000); 趙明濟, 『高麗後期 看話禪 研究』 (서울: 혜안, 2004); 허홍식,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서울: 창비, 2008).

36) 孫成必(2007).

37) 印鏡(2000), 19-22.

38) 印鏡(2000), 410-412.

자료보다 고려시기의 판본에 가까운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고려시기의 간행에 도움을 준 단월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勸修定慧結社文」 판본에는 사명대사 유정이 정정한 것임을 명기한 내용이 보인다.

임란 직후 송광사에서 이 자료를 간행한 사상적 배경은 무엇일까. 1608년 전후에 송광사에서 근 20여 종의 불서를 집중적으로 간행한 것과 관련된다. 이는 정유재란 이후 송광사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간행된 불서를 보면 지눌과 서산의 저술이 주를 이루며, 아울러 후대에 승려 교육의 이력 과정이 정립 되었을 때 四集 과목으로 지정된 불서들과 「몽산화상법어약록」 등 몽산 관련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송광사의 불서간행은 일차적으로는 송광사를 재건하고 승풍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상적으로는 보조지눌을 계승하고 천양함으로써 ‘지눌의 부활’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크게 보면 지눌의 ‘선교겸수’와 맥을 같이하는 서산을 수용하고 그의 상수제자인 사명까지도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1604년에 입적한 서산과 거의 만년에 이른 사명(1610년 입적)을 대신할 수 있는 서산의 사제로서 당대 고승이자 사상적으로 지눌과 배치되지 않은 부휴선사를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송광사는 서산, 사명, 부휴 등 당시 최고의 고승을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눌의 부활’을 표방하게 되었으며, 불교계에서 승가 교육을 강화하는 전통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송광사는 1610년에 이르러 부휴와 그 문도 400여 명과 이미 주석하고 있던 200여 명 등으로 이루어진 대단한 규모의 불교세력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현 학계에서는 조선후기 불교계의 흐름을 크게 서산계와 부휴계로 양분하여 이해하면서 부휴계의 본산을 송광사로 보고 있다. 물론 17세기 중반 이후 서산의 문도 중 그의 적통을 계승한 것으로 자처하면서 당시 서인이 부각된 정치판도 속에서 크게 세력을 결집한 편양계로 한정한다면, 그들과 부휴의 범손들간에는 경쟁과 문파의식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초반까지는 송광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산-사명-부휴 계통은 상호 교류와 공존하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중반 이후 굳이 구분하자면 서산계 내부의 분파인 서산-편양

계와 부휴계간에 경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과 문과의식이 짝트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정치정세 속에서 제기된 법통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송광사와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던 사명대사가 1610년에 입적하고, 이어 그를 추승하는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1612년 許筠이 나옹법통설을 제기함으로써³⁹⁾ 그 단서를 열었다.⁴⁰⁾ 여기에는 광해군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북인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1620~30년에 이르르면 송광사가 지눌 계승의식을 강화하는 추세와 1612년 허균이 제기했던 나옹법통설에 위기를 느낀 계통은 태고법통설을 표방하였다. 그 중심은 서산을 계승한 분파 중 가장 세력이 컸던 鞭羊彥機(1581~1644) 계열이었다. 여기에는 서산을 계승한 적통이라는 의식과 함께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득세하는 정치권력의 향배와 당시 사상계의 경향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⁴¹⁾

한편 이러한 태고법통설을 표방한 편양계는 서산의 선교검수를 계승하지만 선 절대주의적인 경향을 띠었다. 이같은 사정과 관련된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17세기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蒙山 관련 자료의 간행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⁴²⁾ 이는 승려 교육을 위한 이력과목 중에 몽산법어가 제외되는 것과, 17세기 중반 이후 『초발심자경문』을 간행할 때 정형화되어 15~16세기와 17세기 초까지도 대부분 합철되던 『몽산법어약록』 등이 빠지게 된 사실과도 관련된다. 그러면 어떤 연유로 몽산 관련 자료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을까. 앞으로 이에 대한 폭넓은 해명이 있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7세기 중반 이후 당시 불교계에서 편양계를 필두로 사명·부휴계 모두가

39) 許筠, 『淸虛堂集序』; 『西山碑銘』; 『松雲大師石藏碑銘并序』 등이 대표적인 글이다.

40) 조선시기 법통설에 관한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金煥泰, “朝鮮 禪家の 法統考,” 『불교학보』 22(1985); 高翊晉,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불교학보』 22(1985); 崔柄憲, “朝鮮時代 佛教法統說의 問題,” 『한국사론』 19(1988); 許興植, “中世 曹溪宗의 起源과 法統,”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4); 김용태, “불교 계파와 법통의 성립,”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2010).

41) 류동학, “17세기 鞭羊派의 太古法統說 정립과 그 계승,”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42) 孫成必(2007), 64-66.

태고법통설로 통일되었던 현상과 관련될 것이다. 이들은 太古普愚가 임제종의 石屋淸瑋에게 법을 이은 적통임을 강조하면서 고려에 직접 법통을 전수한 바 없는 몽산은 제외시켰던 것이다. 당시 사상계에 불고 있던 ‘소중화’ 의식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몽산 관련 불서간행과 법통설 문제는 해명해야 할 좋은 과제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를 작성하면서 아쉬운 점 하나를 들면, 송광사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물론 수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자료 소개와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으며, 현재 송광사의 자료들은 전남대 도서관에서 전산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차후 학계에 널리 소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高翊晋. “碧松智嚴의 新資料와 法統問題.” 『불교학보』 22(1985). 203-212.
- 高姬淑. “韓國佛教 講院 沙彌科 教材의 書誌的 研究.” 『서지학연구』 10(1994). 883-932.
- 金敏榮. 『金敏榮所藏 古書目錄』. 동국대학교, 2007.
- 金煥泰. “朝鮮 禪家の 法統考.” 『불교학보』 22(1985). 11-34.
- 김용태.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보조사상』 25(2006). 315-359.
-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2010.
- 류동학. “17세기 鞭羊派의 太古法統說 정립과 그 계승.”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2006.
-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孫成必. “16세기 佛書 刊行의 양적 추이.” 『九山論集』 12(2007). 153-183.
- 孫成必. “16世紀 朝鮮의 佛書 刊行.”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대학원. 2007.
- 宋日基. “禪家龜鑑 異本考.” 『서지학연구』 2(1987). 157-180.

- 宋日基. “禪家龜鑑 諺解本과 漢文本.” 『서지학연구』 5·6합(1990). 289-305.
- 宋日基. “禪家龜鑑 成立考.” 『서지학연구』 7(1991). 33-54.
- 宋日基. “順天 松廣寺 刊行 佛書考.” 『서지학연구』 10(1994). 523-552.
- 申法印. 『西山大師의 禪家龜鑑研究』. 서울: 신기원사, 1983.
-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履歷科目的 선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50(2010). 115-142.
- 李鍾益. “普照著述의 書誌學的 解題.” 『보조사상』 3(1989). 149-187.
- 印鏡. 『蒙山德異와 高麗後期 禪思想 研究』. 서울: 불일출판사, 2000.
- 林錫珍. 『松廣寺誌』. 서울: 불일출판사, 1965(1987년 영인판).
- 『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아세아문화사, 1612(1983년 영인판).
- 趙明濟. “朝鮮後期 松廣寺의 전적 간행과 사상적 경향.” 『보조사상』 32(2009). 14-53.
- 趙明濟. 『高麗後期 看話禪 研究』. 서울: 혜안, 2004
- 蔡尙植. 『高麗後期 佛敎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1.
- 崔柄憲. “朝鮮時代 佛敎法統說의 問題.” 『한국사론』 19(1988). 281-293.
- 崔柄憲. “조선후기 浮休善修系와 松廣寺.” 『동대사학』 1(1995). 133-156.
- 許筠. 『淸虛堂集序』; 『西山碑銘』; 『松雲大師石藏碑銘并序』.
- 許興植.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4.
- 許興植.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서울: 창비, 2008.